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사항을 같은 조례 제4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 3건

연번	지정사항	문화유산명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1	유형문화유산	농가월령도 십이폭 병풍 (農家月令圖 十二幅 屏風)	2점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	유형문화유산	윤대집 (倫臺集)	1책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3	유형문화유산	후한서 (後漢書)	19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3-1	정충영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시보 고시일

6.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 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전 화 : 051-888-5082 / 팩 스 : 051-888-5069

-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 전자메일syjs1016@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사유 1부. 끝.

□ 농가월령도 십이폭 병풍(農家月令圖 十二幅 屏風)

- 명 칭 : 농가월령도 십이폭 병풍(農家月令圖 十二幅 屏風)
- 소유자(관리자)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립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 수 량 : 2점(6폭 병풍 1쌍, 12폭)
- 제작자 : 이시눌(李時訥, 생몰년 미상)
- 재질·형상 : 지류, 지본담채(紙本淡彩)
- 규격(cm) : 병풍1 (전체)가로175.2×세로277.9, (화면) 64.3×38.1
병풍2 (전체)가로175.6×세로276.8, (화면) 64.3×38.1
- 지정사유

『농가월령도 12폭 병풍』은 19세기 경상도 동래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주문자 박주연과 제작자 이시눌의 인적 연결망 속에서 제작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6폭 병풍 한 쌍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제1폭부터 제12폭까지 각 화면에는 12개월의 순서에 따라 월별 농촌 풍속이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 제12폭 화면에 적힌 ‘竹林評(죽림이 평하다)’, ‘松菴寫(송암이 그리다)’의 관서(款書)를 통해 조선 후기 동래부(東萊府) 화가 송암 이시눌(李時訥, 생몰년 미상)이 그림을 그리고, 동래부 향리 출신 학자 죽림 박주연(朴周演, 1813~1872)이 각 폭에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를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농가 풍속을 다룬 풍속화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조선 말기에 새롭게 대두된 농가월령가를 시각화한 농가월령도의 성격을 지닌 점, 19세기 한양 중앙 화단과 동래부 지역 화단 간의 화풍 교류와 전승의 실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점에서 지역사·문학사·회화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경상도 동래부 지역 예술가와 후원자의 네트워크 속 주문자와 제작자의 명확한 관계, 작품의 확실한 제작 배경과 전승 내력, 매우 양호한 보존 상태를 고려할 때, 이시눌의 『농가월령도 12폭 병풍』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윤대집(倫臺集)

- 명 칭 : 윤대집(倫臺集)
- 소유자(관리자)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립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 수 량 : 1책(2권 1책)
- 제작연대 : 조선시대, 19세기
- 재질·형상 : 종이, 필사본

- 규 격(cm) : 가로20.1×세로32.0

사주쌍변(四周雙邊), 유계(有界), 반곽(半郭), 반엽(半葉), 10행 18자

- 지정사유

『윤대집』은 동래부 향리 박주연이 오륜대에서 생활하면서 남긴 문집이다. 박주연은 조선 후기 동래부에서 활동했던 향리 출신의 한학자이며, 박주연 가계(家系)는 동래의 대표적인 이임(吏任, 향리) 및 무임(武任, 군사·경찰 업무 담당) 집안이다. 『윤대집』은 1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유일본이며, 책 제목의 ‘윤대(倫臺)’는 오륜대를 가리킨다. 19세기 동래부의 생활, 자연 인식, 향리층의 지향과 문화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동도일사(東渡日史)』를 저술한 박상식은 부자(父子) 관계로, 부산지역에서 2대에 걸쳐 저서를 남긴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책에는 취조봉(鷺鳥峯), 휴산(鵠山, 鵠峯), 노산(櫓山), 정잠(碇岑), 국기리(國基里) 등 오륜대 일대의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하며, 특히 모전평(茅田坪, 모전들), 점기평(店基坪, 점기들), 죽전평(竹田坪, 죽전들), 국기평(局基坪, 국기들), 하산평(下山坪, 하산들) 등 들[坪]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다. 이런 지명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지명이다. 오륜대 일대에 한정된 지명이지만, 부산지역의 옛 지명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농사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부산지역 농업사 등 지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수 있다.

□ 후한서(後漢書)

- 명 칭 : 후한서(後漢書)
- 소유자(관리자) : 정충영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3-1
- 수 량 : 19책(38권 19책)
- 제작연대 : 1530년(중종 25) 이전
- 재질·형상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 규 격(cm) : 세로 35.5.× 가로22.0
- 지정사유

『후한서』는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범엽(范曄, 398~446) 등이 중국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로부터 헌제(獻帝)까지 13대 196년에 이르는 후한의 역사를 수록한 기전체 역사서이다. 이 책은 관판본(官版本)으로, 국가기관인 주자소에서 조성한 금속활자로 인출한 책이므로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하는 사판본(私版本)보다 전래가 희소하다. 금속활자본이자, 초주갑인자본이다. 조선조에서 조성한 금속활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오랜 기간 조성된 금속활자가 갑인자이다. 개인 소장 『후한서』는 갑인자 계열의 금속활자 가운데 가장 일찍 1434년에 조성된 초

주갑인자로 인출되었으므로 전래가 드물고 임진왜란 이전 간본이라 더욱 희소하다. 제주갑인자는 이로부터 150년 이후인 1580년대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서지학이나 고인쇄사, 사학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